

지상낙원



150-0059  
Gospel Booklet  
10/12/09 N. Korean

지상낙원



## 1 part 공산주의의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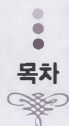
01   공산주의의 뿌리 .....	07
02   공산주의의 패망 .....	08
03   조선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	10
04   공산주의의 오류 .....	12

## 2 part 진화론의 허실

01   변함없이 진화이론으로 남아있는 진화론 .....	15
02   거짓된 진화자료들 .....	15
03   발견되지 않는 진화단계의 동물들 .....	17
04   진화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화석들 .....	19

## 3 part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01   하나님을 증명하는 창조물 .....	24
02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간의 신체 .....	25
03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간의 종교성 .....	26
04   하나님을 증명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	29
05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령 .....	30
06   하나님을 증명하는 셀 수 없는 기독교인들 .....	32
07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경과 예수님 .....	35



<b>4</b> part	<b>예수님은 누구인가?</b>	
	01   예수님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	39
	02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	40
	03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	41

<b>5</b> part	<b>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b>	
	01   인간의 가장 큰 문제 .....	45
	02   “죄”의 대가 .....	46
	03   “죄”(문제)의 해결책 .....	47

<b>6</b> part	<b>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b>	
	01   다시 사신 예수님 .....	52
	02   변치 않는 완고한 사랑 .....	57

### 사랑하는 동포여러분!

저는 1998년부터 중국에 다니면서 대련, 심양, 안산, 청도 지역에서 조선에서 월경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했던 미국교포입니다. 중국의 안전원들의 감시가 너무나 심해서 그들을 피해 조선 동포들과 함께 이사를 한 것만도 80~100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중국 안전부에 붙잡혀 있는 조선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안전부 사무실에 자진 출두해서 한달넘게 심문을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03년에는 공안에 붙잡혀서 연길 감옥에서 1년 3개월 동안 감금되었다가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쁘고 신나는 일들도 경험을 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심장이 날카로운 칼에 도려져서 피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굶주림, 고난의 행군, 가족들과의 생리별을 경험하셨던 동포 여러분의 아픔과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은 아픔과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전쟁의 아픔, 분단의 아픔, 굶주림, 파쇼정권의 핍박, 리산가족 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주지 않고 잘하여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sup>1</sup>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그토록 추구했던 공산주의 락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잘 아시지 못하는 여러 동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01  
PART

공산주의의  
오희

»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밤







## 1. 공산주의의 뿌리

맑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던 1840년대에는 산업혁명의 결과로 수공업 생산기업들이 망하고 많은 실직자(직업이 없는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로 기계와 공장을 가진 자본가들은 더 높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었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맑스는 불평등이 생기는 원인은 많은 재산을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개인재산제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본가들의 개인 소유를 모두 빼앗아 사회로 환원시켜서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만든 다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일하고 여기서 나온 리윤을 공동으로 분배하면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맑스가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된 것은 그가 가졌던 유대교(이스

라엘 종교)와 기독교가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두분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는 어릴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음에 나오는 성경말씀을 결코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sup>2</sup> 또한 그가 여섯살때 부모님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후에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자를 위하신다는 말씀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공산주의의 꿈도 성경을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공산주의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자기의 모든것을 공동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만큼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었다》<sup>3</sup> 그러나 성경의 공산주의와 세상의 공산주의가 다른 것은 성경의 공산주의는 사랑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내어 준 것이지만 세상의 공산주의는 강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 2. 공산주의의 패망

전 세계를 붉은 색으로 뒤덮었던 공산주의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1917년 11월 볼셰비크 혁명 이후 공산주의의 심장의 역할을 해왔던 소련도 1991년 12월 24일에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어 소련군과 서방 연합군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던 동독과 서독도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중국도 말만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개방 후 자본주의의 길로 간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중국의 북경(중국 수도), 상해, 항주, 대련과 같은 도시를 방문한다면 10-20년 만에 천지개벽이 일어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중국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배급을 받지 못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후에 동포여러분이 평생을 벌어도 못버는 돈을 한 달 만에 벌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구하다는 것이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발전해갔는데 모든 공산국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망해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과 남입니다. 북과 남이 38선으로 나누어지던 때는 오히려 북조선이 경제적으로 남한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이 풍부했던 북조선이 남조선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60여년이 지난 오늘 북과 남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그 차이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은 평양에만 적은량의 불을 볼 수 있는데 남조선의 여러지역에 많은량의 전기불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조선족들은 남조선에 들어오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냐면 남조선에서 일하면 중국로임의 10배를 벌 수 있기때문입니다.

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라도 남조선에 오려고 하고 어떤 조선족 처녀들은 남조선에 있는 시골 로총각에게라도 시집가고 싶어합니다. 남조선은 세계대통령과 같은 유엔사무총장(반기문)을 배출한 나라이고 현재 세계경제력은 12위입니다. 남조선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리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쟁의 재더미 우에서,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많은 남조선 사람들이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남조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순복음교회)가 남조선에 있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 3. 조선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조선에는 1907년도 평양에 커다란 기독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 많은 사람들이 공중앞에 숨은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한 남자는 자기 안해가 바로 옆에서 듣는데 다른 여자와의 간음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은 며칠동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듯이 보이더니 예배때에 자기의 음행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 부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 요리사는 주인의 돈을 떼먹은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폭행, 술과 담배, 간음, 강간, 도적질, 살인죄를 회개했습니다. 평양, 개성, 선천등 수많은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퍼졌고

이 부흥의 불길은 중국과 몽골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기독교의 근원지)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기독교가 왕성했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을 이끈 33명의 지도자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일성주석의 가문도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김형직은 기독교학교인 <평양숭실중학교>를 다녔고 어머니 강반석은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반석>이란 이름은 성경(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인 강돈옥은 교회의 장로였으며 독실한 기독교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강돈옥은 김일성 주석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으며 강돈옥의 6촌 동생인 강량옥은 감리교의 목사였습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길림의 손정도 목사님 밑에서 생활하며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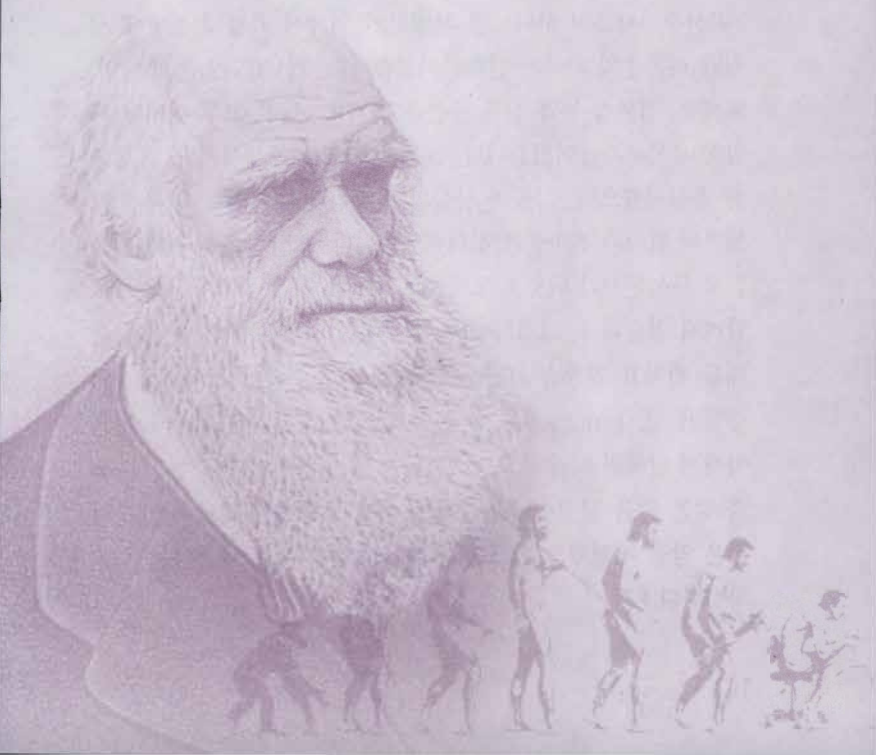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은 대부분 어린시절에 형성됩니다. 유아기에 사람의 성격이 완성된다고 볼때 김일성 주석이 비록 공산주의 투쟁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반석교회(현 칠골교회)와 그 주변에 함께 구성되어 있는 강반석 기념공원입니다. 반석교회(칠골교회)는 김일성 주석이 1989년에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북한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992년 11월에 다시 증축되었고 많은 해외 기독교인들이 방문합니다.

#### 4. 공산주의의 오류

공산주의의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맑스는 《종교는 인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라고 했으며, 레닌은 《현대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이다.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구쏘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흐루시초프는 서기장이 된 후에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자를 전국에 T.V.로 보여준 후 처치하여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서도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한 때는 북조선이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되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철저히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다른 국가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안 하나님을 버린 공산주의 국가들은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의 허실

02  
PART



● ● ●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가장 최전방에 세웠던 이론중의 하나는 진화론이었습니다. 레닌(Lenin),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과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모두 철저한 과학적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폐쇄시키고, 무신론을 촉진시켰으며, 그들의 사상의 정당성과 대중화를 위해 적자 생존의 법칙과 진화론을 장려하였습니다. 스탈린은 다윈의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되었고 모택동도 다윈을 가장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사상은 인류에 더 없는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정치과학자인 럼멜(R. J. Rummel)은 중국 모택동(Mao Tse-Tung)의 정권 아래서 살해된 사람의 수는 77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했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스탈린이 히틀러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으며, 모택동은 스탈린을 뛰어 넘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진화론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마음에 품고 수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들이 철저히 믿었던 진화론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는 증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진화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1. 변함없이 리론으로만 남아있는 진화론

다윈(진화론의 창시자)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습니다. 이제는 벌써 150여년 가량이 지났지만 진화론은 아직도 진화론 즉 가설(리론)입니다. 가설(리론)이 증명이 되면 법칙이 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150여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로력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되지 못한 가설(리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150여년 동안 법칙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가설(리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인 것처럼 가르쳤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홀린 것처럼 비 이성적이고 비 과학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 2. 거짓된 진화자료들

수많은 조선 사람들과 조선족들이 조선과 중국을 드나들면서 남조선 사람들에게 골동품들을 팔았었습니다. 어떤 골동품들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고서 가지고 나온 것 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분의 골동품들은 위조품들이었습니다. 많은 위조품들은 조잡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어떤 위조품들은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진짜를 구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번에 목돈을 벌려고 최근에 만들어서 옛날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들을 사서 큰 돈을 날리신 분들도 속출했습니다. 저도 연길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조선족 교포가 파는 골동품을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산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가짜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진실로 알고 있었던 진화론에 관련된 사실들도 가짜 도자기들처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진화론자들의 편견으로 창조된 오류였다는 것이 이미 수 없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교과서에 나왔던 많은 류인원들도 사기극이거나 오판인 것이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1891년 듀보아 박사에 의해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자바원인도 거짓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1년동안 15m 안에서 허벅지 뼈, 두개골 윗부분, 어금니 3개를 모은후에 그것을 류인원과 인간의 중간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같은 지층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한 것을 30년간 숨기다가 죽기 전에 자바원인은 큰 긴팔원숭이일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네브래스카인의 경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어금이 한 개를 가지고 침팬치(원숭이)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백 만년 전의 선사시대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연구한 결과 네브래스카인의 이발이 멸종된 돼지의 것이라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과학

사이며 전문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돼지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외에 필트다운인은 턱뼈는 원숭이의 것이고 이발은 줄질하고 뼈들은 인위적으로 색칠한 사기극 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때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수십편의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습니다. 똑똑하다는 박사들 까지도 사기극에 놀아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맞지도 않는 사실들이 진실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교과서에도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단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이나 뼈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뼈들을 기초로 해서 인류의 조상들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 이미 진화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되는 멸종된 돼지 어금니 하나로도 인류의 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조작한 뼈나 병들어 죽은 사람의 굽은뼈를 보고 수백만년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화론이 진실이라고 증명해준다는 자료들은 진화론자들의 상상에서 나온 작품들일 뿐이지 진화론을 확실히 뒤받침해줄 진화되었던 동물은 지금까지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 3. 발견되지 않는 진화단계의 동물들

진화론이 사실로 받아들여려면 진화론자들은 우리에게 진화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증명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에 대하여 《과거에는 우연히 발생도 하였고 진화도 분명히 있었지만,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생명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진화도 지금은 목격할 수 없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화단계의 사람이나 동물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화론은 상상가운데서 만들어진 가설이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였던 다윈조차도 자신이 제시했던 이론을 받쳐줄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이론에 의하면 수 없이 많은 전이형태(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형태)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왜 우리는 지층에서 수 없이 많이 보여야 할 이들을 발견할 수 없을까?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변화되는 형태들이 있을텐데》

다윈의 말대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형태가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놔 두더라도 현재 이 시간에 변화과정에 있는 동식물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존재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누구도 진화론을 공격하지 못하고 진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하루만에 전 세계 어느곳이라도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변화과정에 있는 동식물들이 발견됐다고 말하면서 증명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말라 비틀어진 뼈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뼈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수억년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

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고 생존하는 증명들을 지구상 구석 구석에서 찾아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거짓이기 때문에 세계일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살아있는 증명을 찾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 4. 진화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화석들

1997년에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 뼈에서 적혈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2005년에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뼈에서 완전한 혈관구조, 혈액세포, 연부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공룡들은 중생대 (2억 2500만 - 6500만년) 에 번성하다가 멸종되었는데 공룡들의 적혈구와, 혈관구조, 혈액세포, 연부조직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국 몬태나 주립대학 연구원들과 공룡의 적혈구를 발견한 메리 슈워처는 다양한 실험과 분석방법을 통해서 발견되었던 적혈구가 진짜 공룡의 적혈구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세포에서 수 많은 복잡한 동식물들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공룡에서 발견된 적혈구, 혈관구조, 연부조직들은 진화론자들이 계산했던 시간이 잘못된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백지화시킬만큼 중요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보도는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보도통로에서 떠들썩하게 다루었습니다.

진실은 확실한 증거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과학적인 사

실들은 논리적이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받쳐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확고한 증명위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진화론이 상상에 불과한 학설이란 확고한 증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을 상상이 아닌 사실로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억압받는 사람들〉이란 책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리유 때문에 잡혀서 판결을 받아야 했던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공산당 재판관이 그 여학생에게 《네가 믿는 종교는 완전히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학생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 동지는 뉴턴과 아인슈타인보다 과학에 대해 더 잘 아십니까? 그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는 중학교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아인슈타인 우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구약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만 보고도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은 이 진정한 종교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신성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 나라의 위대한 생리학자 파브로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칼 맑스까지도 자기의 〈자본론〉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에 손상된 인간의 본성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리상적인 종교입니다.〉 나의 본성도 이 죄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칼 맑스가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인간성을 되찾고자 하는데 맑스주의자들인 당신들이 어떻

## 게 내가 <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비과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수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많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기독교가 비과학적인 종교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리유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초 과학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학을 초월하실 수 없는 분이 라면 우리는 그런분을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한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전파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가 풍에 맞아 죽음의 문 앞에 다달았을 때 교회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 가시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버렸소, 떠나시요, 사라져 버리시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소.》 그는 자신의 무신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죽어갔습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았던 간호원은 《유럽의 모든 재물을 나에게 다 준다해도 다시는 이와 같은 무신론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신론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는 리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은 자기를 낳아준 부

모를 부인하는 것처럼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부인하는 리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03  
PART





만약 진화론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 1. 하나님을 증명하는 창조물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지구 대부분의 지역이 극심한 더위와 추위로 인해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자전을 하고 있으며 일년에 한번 공전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일초의 착오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지구를 포함해서 8개의 행성과 60개 이상의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마치 큰 기계와 같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말해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한 논리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만든 집들이 있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남조선 사람들이 만든 집들이 있습니다. 북조선에 가면 북조선 사람들이 만든 집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에 어디가나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집들을 보면서 그냥 만 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정신 지력이 떨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집들은 분명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간단한 집도 인간에 의해 만들어 졌다면 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는 지구도 분명히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sup>5</sup>

## 2.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간의 신체

어떤 과학자는 《만약에 다윈이 지금 인간의 신체에 대해 알려진 것들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결코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놀라게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세포에 대한 비밀이 점점 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단순한 세포라 해도 수천가지의 단백질, 유전물질(DNA)을 포함한 수십억가지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억가지의 물질들이 놀랄만큼 복잡하게 배열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과학자들은 유전물질(DNA) 안에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전자의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 노력에 가장 앞장섰던 무신론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10년간의 연구기간 중에 이렇게 정밀하고 섬세하고 지적으로 설계된 엄청난 정보가 그저 우연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sup>6</sup>

### 3.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간의 종교성

한 학자는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종교성이 있다. 인간만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믿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지적인 능력,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레베를 드리기 위해 제단(제물을 올려놓는 상)을 세운 동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거나 레베를 드리는 남녀들을 발견한다. 인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레베하려는 갈망함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베를 드리기 위해 제단이나 신을 만든 동물은 하나도 없지만 인간은 수 많은 신들을 만들어 냈고 그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며 종교를 비판한 공산주의자들도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 냈습니다. 소련에서는 레닌, 중국에서는 모택동, 북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북조선에서 김일성주석을 우상화하는데 사용한 수 많은 방식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란 것은 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sup>7</sup>는 성경 구절을 본 따서 김일성 주석이 숨진 후에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며 아직도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월경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인간의 종교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점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고 월경하기전에 점보는 사람에게 가서 날자까지도 알아보고 월경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두만강을 건드면서 신에게 간구까지 한 분도 있습니다. 6.25사변때에도 유엔군의 폭격이 있을 때 진화론과 무신론으로 무장된 정치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과 공산당원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웨쳤다고 합니다.

로므니아의 리처드 럼브란트 목사님이 소련 군관과 마주 앉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럼프란트 목사님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쏘련 군관은 강하게 《하나님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맑스, 스탈린, 다윈등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가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의 한시간 동안이나 열변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럼프란트 목사님이 그에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왜 곤경에 처할 때 기도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도적질하다 잡힌 것처럼 그는 당황하며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내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승인했습니다. 《전선에서 우리가 독일군에게 포위당할 때면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쩔 줄을 몰라서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라고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감각이 있다는 것은 그 감각에 맞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귀를 가진 우리는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와 음악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자연들이 있습니다. 입을 가진 우리는 먹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이 본능을 채워주는 맛있는 음식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성적인 기관을 가진 우리는 성적인 욕구가 있고 우리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에 맞추어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짓누르려고 해도 짓누를 수 없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감각에 맞는 대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의 대상인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망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 4. 하나님을 증명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성경에서는 사람이 무엇이든 심은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원인이 제공되면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도리에 맞지 않는 억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은 계속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인의 제공자이신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학 공식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주장과 맞서고 있습니다.  $0+0=0$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나 당신의 손에 든 이 책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증명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왜 사과가 날아가지 않을까? 왜 사과가 옆으로 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땅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우주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사과가 아무 원인도 없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움직임을 처음 시작한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모든 만물의 원인의 근원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sup>8</sup>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리없는 소리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sup>9</sup>

## 5.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령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령이 계시다고 말씀 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인간의 삶에 변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의 존재를 바



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어올 때 느끼는 신선함과 나무가지와 옷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존재를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몇 집에 북조선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다가 한번은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조선에서 오신 선생님이 모임을 인도하셨고 간혀만 지내다가 같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데 그 열정이 말할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몇 명의 북조선 청소년들이 기도시간에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한 소년에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냐고 묻자 그 소년이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죄인이란 것이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남조선에서 열리는 큰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음란, 방탕한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으신 성령님(하나님의 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남조선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도 타락한 물질 문화 속에 살면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술, 담배, 마약, 음란 등의 문제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도둑질 했어요. 담배도 피웠어요. 욕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친구들을 따돌렸어요. 엄마랑 아빠랑 리혼했어요. 매일 생각으로 죄를 저요. 남을 죽이고 싶고 간음하고도 싶

있어요. 어떤 오빠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부인 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친구들과 집을 나가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어요.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또한 소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 술을 모두 접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잊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가지 말하기 어려운 것... 실수로 음란행위를 행하였고 그로 인해 아이를 류산시킨적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빗물처럼 흘리며 울부짖는 수 많은 청소년들을 보았습니다. 성령님(하나님의 령)의 능력 앞에서 쓰러져 몸부림치다가 변화되던 청소년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령이 아무도 바꿀 수 없던 청소년들을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 6. 하나님을 증명하는 셀 수 없는 기독교인들

북조선에 잡혀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던 한 소년이 저희와 련결이 되어서 저희가 안산에 있는 월경자가정에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숨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그 소년의 입에서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년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 아이가 악성 결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

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해야하는데 월경자의 신분이라 입원을 시킬수도 없었습니다. 그 소년의 병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아이는 우리와 같이 있어야 살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 은신처에서 죽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다른 아파트에 격리시켜서 돌보아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해 주었지만 실제로 묵묵하게 수고하셨던 분들은 월경자 부부와 조선족 일군(월경자를 돕는사람)였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에게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때는 일군들이 결핵기운 때문에 며칠 누워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결핵약을 먹으면서 다시 가서 기도하고 먹을 것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는 집안에서 썩은내가 났습니다.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채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군들이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로 그 아이는 몇 달만에 기적처럼 완쾌 되었습니다. 살도 찌고 얼굴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북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글은 그 소년의 체험담입니다.

**《저는 동무들과 도문에 있는 공원과 교두에서 남조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문 파출소에 동**

무들과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월경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찬송(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을 부를 적마다 기쁘고 힘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적어준대로 하나님의 집(교회)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병이 다시 발병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리높여 웨쳐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북조선 땅을 사랑하시며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군이 되어 험벗고 굶주리는 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는데 나의 몸과 생명까지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21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알콜 중독자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인을 무시하던 사람이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순한 양처럼 되었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7.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경과 예수님

수 천년동안 성경의 거짓과 오류를 찾아내서 말살시키려는 로력들이 실세 없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공산국가에서는 성경말살운동을 하였고 성경을 소유한 사람을 핍박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벤허>라는 책을 쓴 사람은 루 윌리스였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들어가 성경을 말살시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실이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의심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예수님앞에 무릎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sup>90</sup>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2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까지 60억권이 넘게 인쇄되어 팔리거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 몇 달 만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1600년동안 서로를 모르는 40여명의 저자들에 의해 씌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왕, 선지자(예언자), 농부, 어부, 의사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여명의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 성경을 썼지만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하나 들어맞는 책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수천년전에 씌여진 책이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의 집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옳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sup>11</sup>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예수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서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있다.》<sup>12</sup>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인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수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sup>13</sup>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04  
PART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린 한 젊은 청년이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이 청년은 이제껏 들어 보지도 못한 놀라운 가르침들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단순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병든자를 고치며, 눈먼자를 뜨게하고, 죽은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더 당황스럽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 증명하는 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래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나. 너는 내가 아버지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



시는 일이다.)“ 고 웨쳤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웨치는 젊은 청년 때문에 너무나 당황한 종교지도자들은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후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일까요?

## 1.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님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기념해서 <태양절>을 만들고 그분의 탄생 년을 기점으로 한 <주체년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읽는 모든 신문들도 예수님이 2000여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탄생이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합니다. 이 세상에는 6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21억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세계 최대 종교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세례요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거나 다른 선지자중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때에 베드로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침례)는 물에 잠기셨다가 나오는 의식인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자다.》<sup>15</sup>

예수님께서 종교지도자들과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종교 지도자들 중 가장 높은 대 제사장(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sup>16</sup>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오는 것을 볼 것이다.》<sup>17</sup> 그말을 들었던 종교지도자들은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당시 가장 참혹한 사형틀인 십

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로마 백부장(백명의 군인을 책임진 지휘관)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sup>8</sup>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러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 3.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어떠한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했고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감히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녀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위대하다던 세례요한이란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분의 신의 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이 강했던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을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수 있었던 리유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계시니 나도 일하는것이다.》** 라고 말

씀하셨다. 이때문에 유대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셨을뿐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이다<sup>19</sup> 예수님은 자기의 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자신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아.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래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sup>20</sup>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요한이란 제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하나님을 알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sup>21</sup>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끝까지 부인했던 도마란 제자도 부활(다시살아나심)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뵈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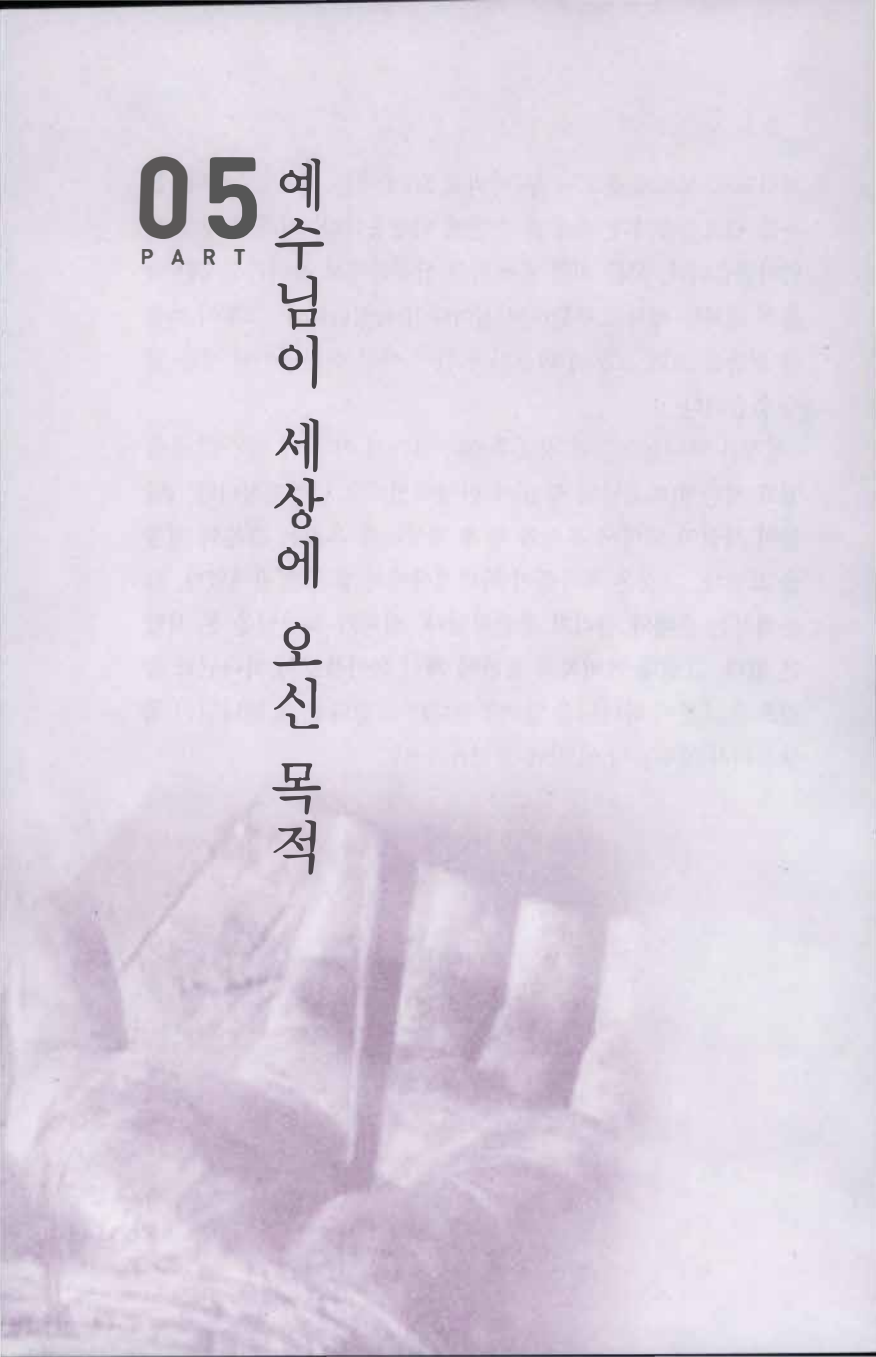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또한 그분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자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우를 걸으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다시살아나심)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였던 일들을 보면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셨던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절(예수님의 생일)에 탄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일찌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었다》<sup>22</sup>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05**  
PART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 1.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칼 맑스는 세상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잘못됐다. 문제는 잘못된 사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땅에 공산주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 맑스의 뒤를 이은 김일성주석도 인민들이 다 공평하게 이밥에 고기국을 먹는 날을 꿈꾸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문제의 근본원인은 잘못된 사회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를 만드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sup>28</sup>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이 병이 들었고 이 병이 우리안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네가 잘못되어있다. 너의 영혼에 병이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병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악이 다 죄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도덕질, 다툼, 부모를 거역함, 음란한 생활, 거짓말, 교만, 질투, 탐욕, 하나님을 부인함 등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sup>24</sup>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 2. “죄”의 대가

죄 때문에 우리가 받게되는 첫번째 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나님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 청을 들으실수 없게 된 것이다.》<sup>25</sup>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분께 죄를 지은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이 두번째로 받게되는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sup>26</sup>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의 대가가 단지 하나님과의 단절과 죽음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단 한번 죽기 마련이고 그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sup>27</sup> 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심판만을 피할 것을 조언해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네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sup>28</sup>

언젠가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까지도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 3. “죄”(문제)의 해결책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에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세상을 구원하시는 분)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률법에 따르면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은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sup>29</sup>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 이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인간보다도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병정들이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수 없이 내리쳤고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몸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고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병정들은 예수님을 끌고 끌고다라는 언덕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벌거벗긴 후에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은후 십자가를 올려 세웠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신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속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디다.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분의 제

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못박은 병정들도 다가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어가는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고 웨쳤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아픔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이 우리가 지은 죄로 가득차게 되었고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죄인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마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인 죽음, 심판, 지옥을 경험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찌른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sup>30</sup>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대신에 모든 아픔과 슬픔

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있는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sup>31</sup> 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만하면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고통을 받았다. 너의 모든 죄를 나의 피로 씻기 원한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06  
PART





## 1.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라져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말씀대로 3일 후에 다시 부활(다시살아나심)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한번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싶이 나에게는 그것이 있지 않느냐.》**<sup>32</sup>

미국 시카고에서 유명한 신학자인 폴 킬릭이란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다시살아나심)이 거짓이란 것을 2시간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학자들의 말과 여러 책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증명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다시 살아나심)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런 기초가 없는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을 마친후에 그는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약 30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일어나서 《틸릭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이든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심 도시락에서 사과하나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틸릭 박사님,》

아삭, 아삭...

《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아삭, 아삭...

《저는 당신이 읽은 책들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삭, 아삭...

《그리고 저는 성경원어인 그리스 언어로

성경을 암송하지도 못합니다.》

아삭, 아삭...

《저는 당신이 말한 유명한 신학자인 니버나 헤데거를

알지도 못합니다.》

아삭, 아삭...

이 나이드신 목사님이 사과를 다 먹은 다음에

그 유명한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방금 먹은 사과가 씹혔을가요?

아니면 달았을가요?»

틸릭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학자의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사과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사과씨를 점심가방에 집어넣고

틸릭박사님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예수님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1000여명이 넘는 관중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일어나 손뼉을 치며 머리가 하얀 목사님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신학자 틸릭은 재빨리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여호와와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신하는 자 복되다.》<sup>33</sup>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제자들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다시살아나심)을 증명했습니다.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중 대 다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쟁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마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후에 변화되어서 그분을 전하다가 창에 맞



아 살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본 후 그분앞에 무릎꿇고 **《나의 주이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후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이 관통되어 순교(하나님을 위해 죽음)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억압했던 바올이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후 자신의 온 생애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 많은 희생을 치른후에 로마제국의 황제 네로의 박해 아래서 목베임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위해 살다가 목숨까지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증명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무궁토록 살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손에 쥐고있다.》<sup>34</sup>**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부처, 모하마트, 공자, 맹자, 맑스, 모택동, 김일성과 같이 이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만이 텅 비어있습니다. 그분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부활 할 수 있어. 거짓말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단한 논리를 통해 부활이 있다고 증명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는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것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주시는것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sup>35</sup>

우리는 자연에서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집니다. 그런데 씨앗이 썩은 곳에서 씨앗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자연이 소생하는 것을 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도 부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뿐만 아니라 우리가 징그러워 하는 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를 기어다니며 잎을 먹는 누에, 나중에 번데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맛있는 간식거리가 되는 누에, 이 누에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에는 번데기가 되면서 죽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비의 생명이 탄생됩니다.

우리 인간이 누에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

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것이다》<sup>36</sup>**

죽음은 모든 사람을 정복한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인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에서 부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이 인생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분을 만난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그분은 새로운 삶과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할 것입니다. 누에에서 나비처럼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나타났습니다.》<sup>37</sup>**

## 2. 변치 않는 완고한 사랑

일본의 한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많은 분들이 술집과 같은 업소들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고한 사랑에 대해서 전하면서 한편의 시를 읽는데 감동을 억누르지 못하면서 우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죄에 붙잡혔어요.  
 주님의 진실치 못한 친구인 제가.  
 제가 얼마나 바보같은지에 대해 묻는게  
 이젠 지겹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해야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하죠?  
 주님의 마음에 백번도 넘게 상처를 입어서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용서해달란 말이 너무 빈소리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계속 용서해주세요.

주님의 변치않는 고집센 사랑이 저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게 리해가 가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 저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감싸주는 사랑.  
 그 사랑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덮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당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한 여성이 나오니  
 다. 그녀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섯명의 남자와 결  
 혼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결코

채움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꺼려하는 뜨거운 정오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신비로운 30대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처음 본 그 청년은 그녀가 다섯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몰라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이 청년은 손가락질 대신 사랑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령혼의 갈증으로 목말라하던 그녀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것이다.》<sup>38</sup> 영원한 만족을 약속한 청년이 다름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됐을 때 그녀의 가슴은 기쁨이 넘쳐났고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녔던 녀인이 담대하게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한 녀인의 공허한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셨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령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령혼의 갈증을 해결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003년 여름에 공안들에게 잡혀서 수갑을 찬 채로 담장이 높고 넓은 간수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자 공안들이 나에게 대해 묻고 옷을 다 벗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 옷, 마지막 입고 있던 팬티까지 벗어서 하나 하나 그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빨간 반팔옷과 검은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 후 간수소 마당을 지나 좁은 복도를 걸어가자 쇠창살 문을 통해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짧거나 뾰뾰 깎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칸에는 녀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또 들어왔는지 지켜보는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 관공가 골목 끝에 있는 한 쇠문을 열고 15평정도 되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10여명의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살인자, 사기꾼, 강간범, 횡령범등 다양한 죄를 지은 중국인, 한국인, 조선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곳을 나갈 수만 있다면 내 한쪽팔을 바치겠다》 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간수들 몰래 레배를 드렸습니다. 레배중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가사를 바꾸어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간수소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간수소도 하늘나라**

아무런 락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간수소 안에서 기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서 간수소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령혼이 편히 쉬게 되리라》<sup>39</sup>

외로우십니까?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메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과 사랑과 평화를 얻으십시오. 령혼에 목마른 사람은 나오셔서 값없이 이 생수의 물을 마시십시오. 주 예수님께서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나오는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 ● 영접기도문 ●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의 저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와 구주로 모셔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이 영접기도를 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을 누리시려면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 성경 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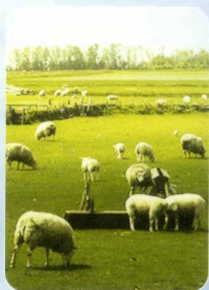
※ 말씀 뒤에 날인 쪽번호 (...어김이 없다.)

No	성경구절	No	성경구절
1	예레미야 29:11	21	요한1서 5:20
2	아모스 5:24	22	요한복음 1:14, 18
3	사도행전 2:44-46	23	마태복음 15:14, 18
4	시편 19:1	24	요한1서 1:8,10
5	로마서 1:19-20	25	이사야 59:2
6	시편 139:14-15	26	로마서 6:23
7	마태복음 28:20	27	히브리서 9:27, 전도서 12:14
8	창세기 1:1	28	마태복음 9:47-48
9	시편 19:1-3	29	히브리서 9:22
10	요한복음 20:28	30	이사야 53:5-6
11	디모데후서 3:16	31	고린도후서 5:21
12	요한복음 5:39	32	누가복음 24:36-39
13	요한복음 14:6	33	시편 34:8
14	요한복음 14:9-10	34	요한묵시록 1:17-18
15	마태복음 3:17	35	고린도전서 15:35-38
16	마태복음 26:63	36	요한복음 11:25
17	마태복음 26:64	37	고린도후서 5:17
18	마태복음 27:54	38	요한복음 4:13-14
19	요한복음 5:17-18	39	마태복음 11:28-29
20	요한복음 14:9	*	

THE HISTORY OF

THE HISTORY OF	1
THE HISTORY OF	2
THE HISTORY OF	3
THE HISTORY OF	4
THE HISTORY OF	5
THE HISTORY OF	6
THE HISTORY OF	7
THE HISTORY OF	8
THE HISTORY OF	9
THE HISTORY OF	10
THE HISTORY OF	11
THE HISTORY OF	12
THE HISTORY OF	13
THE HISTORY OF	14
THE HISTORY OF	15
THE HISTORY OF	16
THE HISTORY OF	17
THE HISTORY OF	18
THE HISTORY OF	19
THE HISTORY OF	20
THE HISTORY OF	21
THE HISTORY OF	22
THE HISTORY OF	23
THE HISTORY OF	24
THE HISTORY OF	25
THE HISTORY OF	26
THE HISTORY OF	27
THE HISTORY OF	28
THE HISTORY OF	29
THE HISTORY OF	30
THE HISTORY OF	31
THE HISTORY OF	32
THE HISTORY OF	33
THE HISTORY OF	34
THE HISTORY OF	35
THE HISTORY OF	36
THE HISTORY OF	37
THE HISTORY OF	38
THE HISTORY OF	39
THE HISTORY OF	40
THE HISTORY OF	41
THE HISTORY OF	42
THE HISTORY OF	43
THE HISTORY OF	44
THE HISTORY OF	45
THE HISTORY OF	46
THE HISTORY OF	47
THE HISTORY OF	48
THE HISTORY OF	49
THE HISTORY OF	50
THE HISTORY OF	51
THE HISTORY OF	52
THE HISTORY OF	53
THE HISTORY OF	54
THE HISTORY OF	55
THE HISTORY OF	56
THE HISTORY OF	57
THE HISTORY OF	58
THE HISTORY OF	59
THE HISTORY OF	60
THE HISTORY OF	61
THE HISTORY OF	62
THE HISTORY OF	63
THE HISTORY OF	64
THE HISTORY OF	65
THE HISTORY OF	66
THE HISTORY OF	67
THE HISTORY OF	68
THE HISTORY OF	69
THE HISTORY OF	70
THE HISTORY OF	71
THE HISTORY OF	72
THE HISTORY OF	73
THE HISTORY OF	74
THE HISTORY OF	75
THE HISTORY OF	76
THE HISTORY OF	77
THE HISTORY OF	78
THE HISTORY OF	79
THE HISTORY OF	80
THE HISTORY OF	81
THE HISTORY OF	82
THE HISTORY OF	83
THE HISTORY OF	84
THE HISTORY OF	85
THE HISTORY OF	86
THE HISTORY OF	87
THE HISTORY OF	88
THE HISTORY OF	89
THE HISTORY OF	90
THE HISTORY OF	91
THE HISTORY OF	92
THE HISTORY OF	93
THE HISTORY OF	94
THE HISTORY OF	95
THE HISTORY OF	96
THE HISTORY OF	97
THE HISTORY OF	98
THE HISTORY OF	99
THE HISTORY OF	100





지상낙원